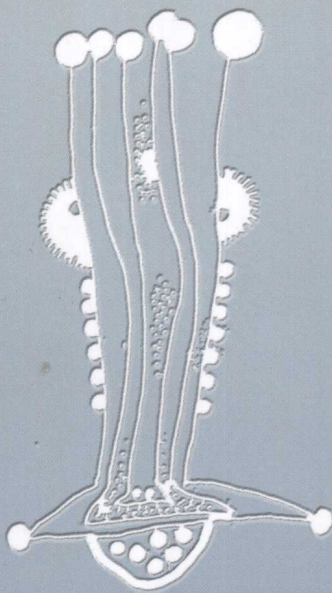


《도리지》 창간30돐기념

《도리지》

우수작품정선

김홍란 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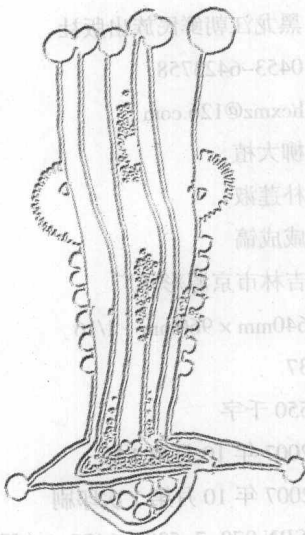


《도라지》 창간30돐기념

《도라지》

우수작품정선

김홍란 편



출판사

图书在版编目 (CIP) 数据

《道拉吉》优秀作品精选: 朝鲜文 / 金红兰编. —牡丹江: 黑龙江朝鲜民族出版社, 2007.10
ISBN 978-7-5389-1477-1

I. 道… II. 金… III. ①中篇小说—作品集—中国—当代—朝鲜语 (中国少数民族语言) ②短篇小说—作品集—中国—当代—朝鲜语 (中国少数民族语言) ③散文—作品集—中国—当代—朝鲜语 (中国少数民族语言)
IV. I217.2

中国版本图书馆 CIP 数据核字 (2007) 第 160184 号

书 名/	《道拉吉》优秀作品精选
编 者/	金红兰
出版发行/	黑龙江朝鲜民族出版社
发行电话/	0453-6423758
电子信箱/	hcxmz@126.com
责任编辑/	柳大植
责任校对/	朴莲淑
封面设计/	咸成镐
印 刷/	吉林市京源彩印厂
开 本/	640mm × 960mm 1/16
印 张/	37
字 数/	550 千字
版 次/	2007 年 10 月第 1 版
印 次/	2007 年 10 月第 1 次印刷
书 号/	ISBN 978-7-5389-1477-1 (民文)
定 价/	50.00 元

머리글

창신과 변혁을 거듭하며 성장의 일로를 달려온 《도라지》잡지가 어언 창간 30돐을 맞이하게 되었다. 이 30년은 《도라지》가 갖은 어려움을 이겨내고 번영과 활약을 보여주며 성취에 성취를 거듭해온 30년이였다. 시장경제의 큰 충격파속에서도 중국 조선족 순문학의 대변지임을 고집하면서 우리 문학의 자존심을 지켜온 《도라지》는 오늘날 드디어 조선족문학의 브랜드잡지로 자리를 굳혔다.

《도라지》는 시종일관 작품의 예술성추구를 우선으로 해왔다. 개성추구는 《도라지》의 영원불변한 풍격이며 특히 최근 10년간 내용과 형식면에서 남다른 얼굴을 갖추기에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오면서 질 높은 작품으로 잡지를 알차게 꾸려왔다.

1997년 소설전문지로 탈변한 《도라지》는 소설가들의 창작열의와 탐구정신을 부추기면서 소설의 개성화와 활성화를 가져왔으며 조선족문단의 소설창작의 질적차원을 대폭 끌어올렸는바 조선족소설발전사에서 리정비적작용을 놀았다. 새시기에 들어서며 수필장르에 대한 독자들의 강렬한 애착과 수요를 넘두에 둔 《도라지》는 또 부동한 란에 부동한 형식의 수필작품을 대량 실음으로써 소설, 수필 위주의 문학지로 자리매김되었다.

오늘 《도라지》창간 30돐을 맞으며 《도라지우수작품정선》을 출간하게 됨을 가슴 뿌듯하게 생각한다. 여기에 수록된 작품 대부분은 최근 10년간 《도라지》에 발표되고 각종 문학상을 수상한 작품들중에서 선정한 수작으로서 가히 이 10년간의 조선족문학의 높은 수준을 대표한다고 볼수 있겠다. 기성작가들의 대표작들이 끊임없는 생명력을 발산하고 신진들의 탐구작들이 떠오르

는 별처럼 반짝이면서 우리 문단을 보다 다채롭게 장식해주고있어 보기에 좋고 마음도 흐뭇하다. 이외에도 우수한 작품들이 많지만 편폭제한으로 다 수록하지 못했음에 아쉬움을 금치 못하며 이 한권의 책이 진정 조선족문학사에 좋은 자료로 남았으면 하고 기대해본다.

《도라지》창간10돐기념집 출간을 도와준데 이어 이번 30돐 맞이 기념집 출간을 도와준 흑룡강조선민족출판사 여러 편집선생님들에게 진심으로 되는 감사의 인사 올린다.

《도라지》잡지사 주필 김홍란

2007년 9월

차례

김홍란 머리말 /1

소설편

- 김 혁 천재 죽이기 /3
류연산 고향행 /46
리여천 누나를 알기까지 /95
리원길 직녀야, 니나 내려다고! /158
우광훈 중첩 /221
최국철 월강곡 /254
김 훈 나 + 너 =? /314
량영철 우리들의 강 /337
리승국 탈락의 의미 /355
리진화 바늘 /375
리혜선 병재씨네 빨래줄 /390
박옥남 동지 /418
박초란 늪 /437
허련순 우주의 자궁 /447

수필편

- 강정숙 감동하며 감동을 만들며 /477
김관웅 거리의 미학 /481

김순희	녀자가 파마를 하고싶을 때 /486
김점순	엄마의 빨래줄 /491
남영도	아흔아홉송이 장미의 비밀 /495
남호손	사랑의 사회학 /500
리선희	천마리의 종이학 /504
리진화	당신의 날개 /508
리홍규	우리의 가슴에 흐르는 계절 /515
박설매	베이징시내의 강아지풀 /518
산 천	겨울들판 /521
서영빈	왜 마을운동회가 더 재미있을가 /524
서영빈	왜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플가 /529
양은희	장미의 가슴앓이 /534
장정일	단풍철의 하늘편지 /537
조광명	삶에 으악소리 한번 제대로 질러봤습니까 /541
조광명	한점의 도자기에도 미치지 못해라 /547
조룡기	우산은 주인이 없다 /550
조룡남	잘 가라, 식도락! /554
최순희	남자가 수영이 나는 리유 /571
최순희	열차 따라 레루끝까지 /575
한영남	혹시 사랑을 해본적이 있습니까 /578
허무궁	란자, 정자의 핵전쟁 /581

소설 편

천재 죽이기

김혁

...박제가 돼버린 천재를 아시오? 난 유쾌하오.

-리상

9

... 《라다》가 지나갔다

《캐딜락》이 지나갔다

자전거가 지나갔다

《오디》가 지나갔다

《샤리》가 지나갔다

봉고차가 지나갔다

《쌍타나》가 지나갔다

삼륜차가 지나갔다

《벤츠》가 지나갔다

살수차가 지나갔다...

man은 밀등을 석회로 칠갑한 가로수곁에 그렇게 서있었다. 멧을 내느라 솔로 박박 문질러 흰 빛으로 돼버리다싶이 한 청바지에 짙은 남색의 T셔츠를 받쳐입은데서 그 자신도 하나의 전지를 금방 끝낸 가로수를 방불케 했다.

대로의 저편이 바다의 피안처럼 멀게 보였다. 그는 지금 홀레하

는 잠자리처럼 꼬리에 꼬리를 문 차량의 물결을 헤갈수 없어 출근 시간의 많은 부분을 네거리에서 허비하고있는것이였다.

-지하상가를 리용하세요.

안해가 귀뜸해주곤 했다. 허나 man은 뒀안길의 왕거미줄 같이 얼기설기 뻗은 상가의 통로에서 늘 길을 찾지 못하곤 했다.

-뭐가 찾기 어려워요? 국제무역청사 서대문앞 입구로 들어가서 왼쪽으로 휘어들면 먼저 담배난전, 과일난전들이 보이죠. 곧게 가다 또 왼쪽으로 휘면 옷난전이 보이죠. 그담 오른쪽으로 휘면 녀자들 속내의 전문이고요. 다시 왼쪽으로 휘어들면 구두난전... 구두난전이 끝나는 곳에서 왼쪽으로 휘면 CD난전, 그곳 입구로 나오면 곧바로 청년려행사이고 그 맞은편에 마침 당신들 직장이 있잖아요. 기억력이 그렇게 비상하다는 사람이 그게 뭐예요? 요즘 세월엔 약삭빠른 놈마저 등치우고 간 빼먹히는 세월인데...

풍진세상 인간들의 정감세계는 그 농도와 줄기가 천양지차로 다른 법이였다. 이렇게 마냥 안해에게서 신칙을 받는 man에게 있어서

아담과 이브의 실락원이며 쥬라기시대의 공룡이며 산정동인의 하악골이며 말탄 기사들의 연미복(燕尾服)이며 김에 불리는 주전자 뚜껑과 증기기관과 와트며 우유를 시궁창에 쏟던 불황의 년대며 히로시마에서 치솟던 버섯구름이며 환형산기슭에 남긴 우주인의 첫발자국이며 인터넷의 불가사의의한 힘이며 복제양 돌리의 탄생이며... 에 대해서는 그 초장부터 끝장까지 장절, 수자, 부호마저도 낱낱이 기억해낼수 있었지만 그에 비해 허드레인간들에게는 어처구니없을 정도로 쉬운 두부값, 콩값을 기억해내지 못하고 추려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안해의 핀잔은 그녀의 체중과 정비례되어 나날이 불어만 갔고 man은 그에 따라 요즘 세월의 락오자로 안해의 흰청 많은 눈길에 밀리우곤 했다. 그럴법도 했다. 안해의 한달수입은 그의 한달로임×3하고도 남음이 있었던것이다. 셀러리맨으로 인품 높던 그의 위상이 길 녀난전에서 아녀자들에게 한달에 한번만 수요된다는 생리용품을 파

는 허드레장사군 안해에게 제압당해 김 뽑히고 원상을 잃어가고있는 것이었다. 그만큼 자신에게 안해 같은 순발력의 찌꺼기쯤이라도 있으면 요즘 세월에 그 누구보다도 땅이 나게 살수 있을것이라고 그는 생각한적 있었다.

수영이 맨처음이고 다음엔 마라손 그다음엔 자전거경기인 서구라과의 종합경기종목처럼 134대의 차량을 지나보내고 출근고봉기의 대로를 헤치고 나온 man을 그다음엔 엘리베이터가 태워가지고 9층높이의 사무실에까지 대여주었다.

뭐라고 딱히 말할수 없는 냄새, 페인트칠을 한 창틀과 낡은 가죽 소파와 색바랜 사무테블과 너나의 앞에서 곰삭고있는 서로 다른 종류의 눅거리차와 서로 다른 표의 담배와 모발에서 풍기는 샴푸냄새...가 혼반이 되어 떠돌고있는 사무실 내음속에 코마루를 벌름거리며 들어서면 긴긴 드라마의 주인공같이 익숙하다 못해 권태기를 조금 자아내는 동료들의 얼굴들이 어제처럼 래일처럼 맞아주었다.

man의 부서에서는 사무원 셋과 부장 한명을 두고있었다. 퇴직기한이 엘리베이터 타고 8층째까지 닿아오고있는 부장님은 회사와 함께 늙어오면서 공로는 없어도 그런대로 로고는 있는분이었다.

동료1- 회사에서 《미식가》로 통하고있는터였다. 식당, 나이트클럽, 레스토랑, 부페의 음식으로부터 지하상가, 밥시장의 싸구려음식, 교외의 토속맛의 음식에 이르기까지 그 맛, 작식법, 가격에 대해 거론할라치면 《586》의 공능이 울고 갈 지경이다. 그에게서는 늘 달콤한지 시큼한지 알수 없는 텃지근한 냄새가 배여있는듯했다. 게다가 낚시질에도 역시 강태공을 뺄치는 국수라 한다.

동료2- 함경북도 토종으로부터 3년 4개월전부터 갑작스레 서울 말투로 탈바꿈해 어미(語尾)에 《요》자의 부착률이 그 누구보다 많은 그는 8시간이후의 애호가 만수반이로 다양했다. 애초에 그는 룡구를 한사코 좋아했다. 하여 그의 입에서는 늘 《공중비인(飛人)》- 맥클 초단, 《마술사》-존슨, 《랭면사수》- 바클리, 시카고 수소팀, 휴스턴 로케트팀... 등등등으로 룡구스타며 룡구팀이며가 련줄로 뿜겨나 오군 했다. 그런데 나 말이에요, 룡구말이에요, 굉장히 좋아해요! 매일이다싶이 식(食)기도처럼 외우던 그가 박정한 련인처럼 룡구에 등

을 돌려버렸다. 원체 그들 부서의 전임부장이 룡구에 환속되다싶이 했던것이다.

그 룡구부장이 승격하고 떠난 뒤 동료2는 늦깎이로나마 《성쌍기》에 열심하고있었다. 하여 루즈를 미장이 초단자처럼 엉성히 바른 그의 입에서는 요사이 마작용어가 새로이 서렬을 지어 출두해나오고 있었다. 좆후, 좆, 즈머, 차, 안짱, 요빙, 쓰토, 빠완, 평, 후라!

《넌볼도 뭉뭉, 소빨도 각각》인 세분의 집합점이라면 셋 모두가 키가 보통키보다 한눈금 내려온 체격 그리고 도수안경을 걸고있다 그것이였다. 세사람의 《12개》의 눈길과 마주하느라 man은 늘 초동머리적 해빛아래 추겨들었던 확대경밑의 마분지를 머리에 떠올리곤 했다.

그 12개의 눈길이 늘 그러하듯이 오늘도 man을 바라고 조리게를 맞추었다.

-어머 청바지를 입으셨네요.

동료2의 안경테가 코마루에서 집장고도를 했다. 이어 여느때와 같이 늘 하던 부언을 잊지 않았다.

-잘 어울리지 않네요. 키가요, 엄청나게 커놔서요.

-그래도 입고서 가랭이를 두겹씩 걷어올리기보담은 괜찮을건데. man은 선선히 대꾸하며 테이블앞에 마주앉았다.

-불편하잖을가? 꼭 갑옷같애. 난 거추장스러워 이런 옷은 입어 못내네.

동료1이 하회를 이었다.

-사무원 신분으로선 그래도 정장이 격에 맞는거여 쿨룩!

부장이 총화처럼 곁들었다.

이어서 담배를 뽁뽁 빨아대며 신문을 벌걱거리며 차물을 후룩후룩 들이키며 향간과 세계와 태고적과 현실에 대한 패설, 잡담, 한담, 험담, 육담이 오가며 낡은 레코드 복창하듯한 회사의 하루가 시작되었다.

-햇마늘이 시장에 나왔더군요... 아흐흑- 엿저녁 4차까지 했더니만 지긋해죽겠구만. 설령탕은 그래두 《○○설령탕》이 일품이야! 《××구복액》광고가 지천으로 깔렸데 그래. 그 약이 그렇게... 쿨

록... 그렇게 효험이 있을감?... 인도에서 핵시험을 했더군요... 췌-
 광고부의 口口하구 부기과의 △△있잖아요. 사무실서요 그짓 하다가
 요 들켰대요. 히히... 하긴요 지금 세월에요 제 기물 가지고 굿하든요
 장단하든요 관계할바가 못되지요 뭘... 헌테요 口口가요 밴대였대요.
 밴대가 뭐냐구요? 어유, 나원요. 선생님들이라구야. 밴대가 뭐냐, 후
 후훗, 그곳에요 《머리》가요 나잖은걸 두고 말하죠... 킬킬킬 후하하
 어호호호호... 《타이닉호》가 오스카 11개 종목의 상을 받았더군요.
 그 영화 봤습니까? 못봤다구요? 그럼 VCD로 봤겠지요? 못봤다구
 요?? 그럼 영화주제곡 《잃어버린 내 사랑》은 들어봤겠지요? 요즘
 유행 톱가요인데요. 못들었다구요???... 《○○보신탕》집에서 개고기
 에 아편을 넣어 맛을 돋군다더구만... 헌데 이자 금방 단오인데 왜 이
 리 덩지? 엘니노현상이라누만... 네미릴 × 같이 이런 지랄 같은 날씨가
 언제까지 지속되려나?... 어힘! 그런데 오늘이 무슨 요일이던가암?
 월요일입니다!!!

8

-리자로 끝나는 말은 우리, 유리, 소리, 머리, 허리, 다리, 피리,
 향아리, 병아리, 머저리...

말에는 그렇듯 신명나하고있었다. 목청도 까랑하게 박수를 짹짹
 쳐대며 말꼬리잡기를 하고있었다.

-자 담은 내 차례야, 자리, 보리, 거리, 파리, 거마리, 종아리, 종
 다리...

동심에 어우러지는 순간이 좋았다. 파시시한 초동머리와 가슴을
 철렁이게끔 맑은 눈동자와 장난기 꼬질꼬질 묻은 오탁한 코마루와 천
 연기 가득히 불뚝하니 살아오른 불타구니의 딸애와 함께 할 때마다
 man은 마음벽에 묻은 모든 고뇌와 번민, 얼룩이 잊혀지고 사라지고
 지워지는 기분이였다. 동심이라는 탈면지로 주름진 대인세계의 갈피
 에 낀 청태를 순화해내면 금시 욕탕을 나와 일습을 개변하듯 심신이
 거뜨해지는것이였다.

젊은 부부들은 흔히 결혼초기에는 완벽한 밀애에 빠졌다가 조금

권태기를 촉감했다가 둘사이의 결실인 아이를 가지면서 다시 새로운 내용물의 사랑을 감지하다가 강보에 대한 양육의 피로감을 느꼈다가 아이가 말을 번지고 예쁜 것만 골라할 시기에는 또다시 정감의 귀함을 느낀다고 했다. man은 바로 그런 묘미에 가정이라는 삽작문을 때 맞춰 열고 돌아와 그 뜰에서 즐거움과 여유와 행복을 즐기곤 했다. 때로 자정의 산적구이점에서 사우나탕으로... 4차 5차 매진해가는 현대인들의 오기가 없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가정이라는 자그만 반경속에 자신의 커다란 체구와 정감을 달무리 짓는 경우가 많았다. 그만큼 그는 사업에서 빼어나게 열심했고 가정에도 구순하게 충실했다.

그에 반해 그 원을 짓는 콤파스다리의 한쪽이 기울었다면 외려 안해쪽이었다. 아무리 《음성양쇠》의 기운 세월이라지만 근년들어 안해는 아열대식물처럼 강장해졌고 man은 그 잎사귀와 그늘에 가려 음지식물처럼 연약해진것이였다. 애초에는 난전의 창사균들끼리 되놀이를 합니다, 산보놀이 갑니다, 3.8절 씩니다 하며 토를 달아 외박이 잦더니 묘사인 한보 승격하여 최부장이 청해요, 오사장이 청해요 하면서 집을 나서곤 했다. 처음엔 초저녁을 넘기 바쁘게 달려오더니 이제는 자정을 넘기기가 일쑤였다. 처음엔 미안감과 죄송스러움이 보이더니 이제는 찾아볼수 없고 외려 오기와 뻔뻔한감 같은것이 엿보이기까지 했다.

무릎가에서 재깎이던 딸애는 어느새 잠이 들어있었다. 자리를 펴고 아이를 눕혔다.

-리자로 끝나는 말은 유리... 소리... 허-리... 다-리... 병...아... 리...

딸애는 잠꼬대를 하고있었다. 무엇이 그렇게 즐거운지 꿈속에서도 캐드득 웃고있었다. man의 품속에서 안전감과 행복감으로 잠이 들어있었다.

아이는 오작품 엄마를 두고 아빠한테서 이중으로 모성(母性)까지 느끼고있는걸가? 그렇다면 나는 어데 가서 모성애를 찾아야 할가? man은 한번도 얼굴을 보지 못한 친어머니를 생각했다. 가벼운 한숨을 짓고나서 애의 따스한 불에 자기 불을 가져다 붙였다. 그리고는 무언가를 기다렸다.

man의 6감각은 언제나 그렇게 준확했다. 그가 전화에 생각이 미치자바람으로 따르릉- 따따르릉- 전화벨이 노래했다. man은 헤덤비며 덮쳐가 수화기를 들었다.

-여보세요?

간지러운듯한 녀자의 음성이 들렸다. 빨 힘이 다분한 목소리였다. man은 다시한번 전를하고 흥분하는 자신을 느꼈다.

-J, J양 맞죠, 나 M입니다.

J라는 녀자...

-여보세요? 리부장댁 맞죠? 어머 잘못 눌렀네요. 죄송합니다...

-여보세요? 리부장댁... 어머 또 잘못 눌렀네요. 전화번호가 비슷해놔서요. 정말 죄송합니다아...

-여보세요? 리부장... 어머머 취했나봐요. 정마아알 죄송합니다아아...

이렇게 시작된 통화였다.

-네 리부장댁 아닙니다. 죄송할것 없어요. 우리 이제 구면이구만요. 록음기소리 핑장히 높은데요. 음악 즐기는 모양이죠.

-네에 이 노랜 제가 가장 즐겨듣는 애청곡이랍니다. <J에게> 얼마나 좋은 노랜가요.

-저한테도 마찬가지로.

-소일거리로 소설책도 보고 음악도 듣고 하는데 이 노래가 저한테 딱 맞는쪽인가봅니다.

-어떤 책 즐겨 읽지요?

-추리소설을요. 전 추리소설 억수로 좋아해요.

-나도 추리소설이라면 밥 먹기를 제쳐놓습니다. 코난도일이라든가 아가사·크리스티·헬렌포우, 모리무라 세이이찌의 소설들을 말입니다.

-어머머, 지기를 만났나봐.

이렇게 늑거리 애정소설에서처럼 전화파트너를 사귀게 된 man이었다. 노래제목을 따서 상대는 J로, 남자라는 영문자모의 첫자를 따서 자신은 m이라 통성명하고...

고독한 녀자 같았다. 누군가와 대화하고 싶어하는 녀자 같았다.

하여 며칠을 사이두고 녀자는 시간맞춰 전화를 걸어왔고 그 녀자와 동병상련의 처경인 man도 가끔 그녀에게 전화를 주곤 했다. 무슨 얘기는 이야기거리를 만들어서는 밀도끝도 없이 이야기를 나누곤 했다. 생면부지의 녀자와의 통화, 어텐가 기상천외한 느낌이 들곤 했지만 수화기를 들고 피부에 와닿는 맑진 목소리를 들을 때마다 까닭없는 생기를 느꼈고 통화를 마치고나면 해골머리가 개운하고 체증이 사라진것 같은 느낌을 받곤 하는 man이었다.

얼마전부터 man은 전화로 녀자에게 《여섯사람의 낭떠러지》라는 추리소설을 이야기해주고있었다.

《어떤 공학박사가 있었습니다. 공학분야에서 엘리트로 꼽히는 나 젊은 인재였지요. 어느 한번 박사는 동인 다섯명과 함께 등산여행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웬당 즐거워야 할 여행에서 참사가 일어났습니다. 어찌된 까닭인지 공학박사가 낭떠러지에서 뛰여내렸던거지요…》

여기까지 이야기했는데 통화가 길어져 전화를 끊었었다. 그리하여 녀자는 장화소설의 다음회를 기다리듯 오늘도 man에게로 전화를 넣었던것이다.

-여보시오? 전번엔 공학박사가 낭떠러지에서 떨어져 죽은데까지 이야기했죠? 자. 그다음부분이 이어집니다… 모두들은 그 박사가 술을 과음하고 젊은 혈기에 무모한짓을 저질렀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이들은… 아니, 기침을 하시는구만요. 몸이 말썽거나 아니십니까? 괜찮다구요? 그럼 계속하겠습니다… 어떤이들은 그 박사가 원체부터 정신질환을 가지고있다고 했습니다. 정신질환자의 환각으로…

-잠간요. B P가 오는구만요. 미안해요. 일후 다시 얘기하자요. 안녕!-

man은 채 먹지 못한 떡을 내려놓듯이 아쉽게 전화기를 내려놓았다.

방에는 순간에 고요가 해조(海潮)같이 밀려왔다. 고요를 잠식하며 옆집에서 울리는 수련대는 소리가 차츰 또렷하게 감지되어왔다. 이어 그 수군거리던 말소리는 기묘한 소리로 바뀌여 본의 아니